

시편 묵상 62  
(12/29/2023, 금)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시 37:4-7

말씀에 대한 이해: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아야 하는 성도가 지켜야 할 본분을 계속 묵상해 보자.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2)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 37:4 -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노그’는 ‘고상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스스로 고상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악행자들의 육신적 행동을 보며 불평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고상한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부정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의 온 몸을 주의 복음을 위해 완전히 희생할지라도 기뻐하겠다고 말했다. 빌 2:17-18 -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 4:4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며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다. 결국 진정한 내면의 기쁨은 참된 믿음의 결과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기뻐하는 그 자체로 인한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노래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그 신뢰를 보시고 허락하시는 주님의 응답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다.

(3)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 37:5-6 -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길”은 인생 전체를 의미한다. “맡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칼랄’의 문자적인 의미는 ‘굴리다’인데, ‘의탁하다’라는 뜻도 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굴러 내려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진다는 뜻을 품고 있다. 아울러 어떤 사명이나 임무를 위임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칼랄’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들을 살펴 볼 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구절의 의미는 인생의 각종 문제와 삶의 짐 때문에 힘들어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맡기는 믿고 의지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주의 백성들의 짐을 져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주의 뜻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나의 인생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 16:3 -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 16:9 -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길을 맡기는 자들의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신다(6 절). 다윗은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과 의와 공의를 연결지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을 의와 공의를 빛나게 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 바로 의와 공의이다. 결국 본문은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빛처럼 밝게 하신다는 표현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부각하고 강조하신 것이다.

**(4)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 37:7 -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이다. “잠잠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형 ‘따맘’은 ‘침묵하다,’ ‘조용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이 단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어떤 일에 조바심을 내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 기다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형 ‘홀’은 ‘춤추다,’ ‘몸부림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출산하는 여성이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것을 묘사할 때 쓰였다(사 13:8; 23:4; 26:18 등). 본문에서는 ‘고대하며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잠잠하며 참고 기다릴 줄 안다. 믿음의 본질 중의 하나는 기다림이다. 본 구절은 행통을 누리려는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다시 권면했다. 우리가 악인들의 세속적 번영과 행통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문제 많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잠잠하며 참고 기다릴 때 주시는 주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성도의 본분을 다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양광균(가나), 이기형(에티오피아), 최인호(케냐) 선교사님의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3. 1954년부터 파푸아뉴기니에서 의료 선교를 해 왔던 뉴질랜드 출신 린 칼버트(Lin Calvert) 선교사가 9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혼 후 런던선교협회(LMS)의 파송을 받고 남편과 함께 파푸아뉴기니의 카푸나(Kapuna) 지역에 정착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카푸나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1만 명의 신생아 출산을 도왔고, 7천 명의 결핵 환자를 치료했으며, 홍역과 콜레라 같은 질병 예방에도 헌신했습니다. 병원 업무 외에도 주변 지역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건강 검진과 예방 접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구호소 15개를 세웠습니다. 구호소 중 한 곳은 지역사회 보건 직원을 교육하는 학교로 발전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동안 수천 명의 의료 종사자와 간호사들이 양성되었습니다. 또한 칼버트 선교사 부부는 병원에서 매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의료 봉사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1982년 남편 피터(Peter Calvert) 선교사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와 자녀들은 여전히 카푸나 병원에 남아 의료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칼버트 선교사는 지난 8월 9일 숨을 거두었고, 남편과 똑같이 뉴질랜드가 아닌 파푸아뉴기니 카푸나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 동료였던 닐 홉킨스(Neil Hopkins) 선교사는 이 부부가 평생토록 시골 마을을 떠나지 않고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들의 유익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치며 헌신했다고 추모했습니다. 카푸나 병원이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건과 의료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이곳에서 평생을 바친 선교사의 헌신과 수고가 기억되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